

광양시 시내버스 노선개편...다음달부터 두달간 시범운영

총 12개 노선...3번 경유지 변경·20번 부현마을까지 연장 문제점 점검 최종 노선안 확정...신규노선은 9월 이후 투입

광양시가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은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시범 운행한다.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노선은 총 12개이다.

▲광양읍 일원 3번·6번·7번 ▲봉강면 일원 20번 ▲육룡면 일원 21번·21-3번 ▲골약동 일원 23번 ▲진상면 일원 30번·33번 ▲다압면 일원 35-1번 ▲중마동 일원 1000번·1001번 노선 등이다.

3번은 칠성초교·E편한아파트 등으로 경유지를 변경하고, 6·7번은 E편한아파트·읍사무소로 경유지를 바꾼다.

20번은 부현마을까지 경유지를 연장하고, 21번은 운행 횟수를 1회 단축한다.

21-3번은 백운산휴양림으로 경유지를 연장하고, 23번은 푸르지오·골약중으로 경유지를 변경한다.

30번·33번은 섬거마을로 경유지를 바꾸고, 35-1번은 하천마을로 경유지를 연장하고 운행 횟수를 1회 줄인다.

1000번·1001번은 영무예다움·수산물유통센터

로 경유지를 바꾼다.

광양시는 시범운영 기간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최종 검토해 시범운영 기간이 끝난 후 변경노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애초 투입 예정이던 신규 노선은 제조사 차량 출고에 맞춰 올해 9월 이후 노선별로 투입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 의견조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주민설명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확정했다.

정성환 광양시 교통과장은 "변경노선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최종 검토해 노선을 확정 짓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한 명의 시민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가 올해 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 식단 제공을 위해 사업비 161억원을 투입한다. 어린이들이 친환경 식사를 하는 모습. <순천시 제공>

순천시 예산 23억원 추가 투입 학교급식 친환경 식단 강화

어린이집·학교 316곳 지원

순천시가 학교 급식 개선을 위한 자체 예산 23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순천시는 올해 학교 급식에 친환경·비유전자변형(Non-GMO) 식재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61억원을 투입한다.

학교 급식 지원은 분야별로 '무상급식 식품비 75억원', '친환경 식재료 74억원', '비유전자변형 가공품 12억원' 등으로 나뉜다.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316곳 4만3000명에 친환경 식단을 지원한다.

순천시는 자체 예산 23억원을 추가로 마련해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일 수를 40일 연장하기로 했다.

급식 단가는 400원 올리고, 고등학교 저녁 식사를 위한 쌀을 지원할 방침이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많은 학생이 우수한 건강 먹거리를 받고 지역 농산물 판로를 넓히는 데 힘쓰겠다"며 "교육기관, 급식 공급업체, 교육청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시장 정인화·가운데)와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 지역 기업·단체가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광양제철소 등 '탄소중립 정기총회'

기관·단체 50여명 실천 방안 논의

광양시와 광양제철소 등 주요 기업이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정기총회를 열었다.

광양시·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가 최근 시청에서 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2024년도 정기총회'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이동렬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박병관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와 36개 참여단체 대표자와 실무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감사보고와 올해 사업·예산 승인 등이 이뤄졌다.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 임원으로 박병관 상임대표와 허형재 운영위원장 등이 재선임됐다.

이어 관련 공로를 세운 김재수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이방현 ㈜포스코 환경자원그룹 차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광양시는 올해 ▲탄소중립실천 양성가 교육 ▲정소년 기후변화 토크 콘서트 ▲탄소중립 환경사업 공모전과 전시 ▲한라와 영랑 취약계층 지원사업 ▲탄소중립실천 홍보 등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폐현수막·천류 등에 대한 자원순환과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 상설환경교실, 시민생활용 리플릿 등이 진행됐다.

지난 2009년 설립된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는 그동안 탄소중립 실천가를 1700명 양성하고, 6700곳에 온실가스 진단을 벌였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한 해 저탄소 녹색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 준 광양기후환경 네트워크 기관·단체에 감사를 전한다"며 "광양시는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광양'을 목표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전국 최초 '우주 항공해설사' 양성한다

3월8일까지 이메일·우편 모집

고흥군이 차별화된 우주항공 전문 해설을 제공하는 '우주항공 해설사'를 양성한다. 전국 최초로 고흥군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우주항공 해설사는 우주항공 시설이 집적된 고흥의 우주항공축제와 우주항공 여행상품 운영 과정에서 어려운 우주 관련 이야기를 관광객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게 된다.

해설사 모집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 등 활동 공간이 고흥인 60세 미만으로, 지역관광에 소양이 있으며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건강에 제약이 없으면 지원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3월8일까지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주항공 및 과학 관련학과 전공자나 경력자는 우대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된 교육생은 우주항공 관련 교육과 해설사 소양 교육 30시간

을 이수한 이후 최종 평가를 통과하면 고흥 우주항공해설사로 활동하게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국내 유일 우주발사대가 있는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하며,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지정,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지정으로 관련 산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트렌드에 맞는 전문 해설 및 우주항공 여행상품 개발로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보성군 '사랑의 온기 나눔 릴레이' 추진본부 출범 활동 시작

12개 읍면 자원봉사·나눔 행사

보성군이 '온기 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군 특성에 맞게 기획한 '사랑의 온기 나눔 릴레이 행사'로 동참하고자 지역 추진본부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온기 나눔 범국민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에서 각종 재난 재해와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는 국가적 나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범국민 캠페인이다.

추진본부는 26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12개 읍면이 3월18일까지 특색 있는 자원봉사 및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군 전역에 캠페인을 확산시키고 홍보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보성군, 보성군자원봉사센터, 복지기동대, 민간단체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캠페인 추진 협의 및 기관·단체별 활동 공유를 통해 '온기 나눔 범국민 캠페인'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참석자들은 조성면에 거주하는 고독사 위기 가구 임 모 씨의 주거지 내외부 청소 및 빨래, 쓰레기 수거 등 봉사 활동을 펼치며 대상 가구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랑의 온기를 북돋아줬다.



보성군이 '사랑의 온기 나눔 릴레이' 여정을 시작한 가운데 대상자 주거지 내외부 청소 및 빨래, 쓰레기 수거 등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보성군 제공>

이미에 보성군자원봉사센터장은 "사랑의 온기 나눔 릴레이 행사가 더욱 뜨거워지는 행사가 되도록 민간단체(국민운동, 자원봉사, 복지기동대 등) 및 12개 읍면이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사랑의 온기 나눔 릴레이 행사에 동참해 주신 민간 단체(국민운동, 자원봉사, 복지기동대 등) 및 12개 읍면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사랑의 온기가 희망의 빛이 돼 보다 따뜻하고 살기 좋은 보성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군이 라오스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을 열고 근로자 30명을 환영하고 관련 교육을 했다.

곡성군 라오스 계절근로자 30명 입국 환영식

근로 준수사항·감염 예방 교육

곡성지역 농촌에서 일할 라오스 계절근로자 30명이 최근 입국해 활동을 시작했다.

곡성군은 최근 곡성군민회관 참여마당에서 라오스 므앙타파발 출신 계절근로자 30명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이상철 곡성군수와 윤영규 곡성군의회 의장, 군의원, NH농협은행 곡성군 지부장, 곡성농협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는 근로 준수사항과 진드기 감염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곡성군과 곡성농협은 지난해 라오스를 찾아 라오스 고용노동복지부와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근로자들은 입국 직후 곡성군 보건의료원에서 건강검진과 마약검사를 마쳤다. 이어 외국인 등록과 보험 가입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곡성군의 이번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기존의 장기 고용 중심의 계절 근로 프로그램과 달리 단기 노동력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근로자를 제공한다.

딸기, 멜론, 감자, 블루베리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할 것으로 곡성군은 기대하고 있다.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곡성농협(061-363-6618)으로 최소 5일 전까지 전화 신청을 해야 한다. 1일 이용료 10만원(중식비 포함)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인 곡성농협에 선입금하면 근로자를 배치받을 수 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

여수시 임산부·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

월 2회 맞춤형 보충식품 지원

여수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산부·영유아에 영양보충 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 대상자는 여수에 사는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이하 영유아이다.

여수시는 이들의 빈혈과 성장 부진, 영양 불량

등을 예방하기 위해 월 2회 맞춤형 보충 식품을 보내고 월 1회 영양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보충 식품 꾸러미는 일상에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도록 영양밀도가 높은 식품으로 구성된다.

분유, 쌀, 감자, 미역, 우유, 달걀 등 식품 공급원이 들어가며,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제공된다.

여수시는 지원 기간 대상자의 영양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종료 시점까지 정기적인 영양 평가를 진행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여수시보건소 영양플러스실(061-659-4190)로 전화 사전 예약 후 직접 방문에 신청할 수 있다.

자각·소득 심사를 거친 뒤 신체 계측, 빈혈 검사 등 영양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출산 전후의 영양 상태는 엄마와 아기의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다"며 "취약계층 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 해소를 위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